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9학기 내일개강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 9학기가 내일(3월 25일) 오후 2시에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한다. 강의는 5월 27일까지 10주간 매 주 월요일에 실시된다.

오후 2시부터 90분간 계속되는 제 1교시 강의는 5학기부터 계속해 온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이어지며, 4월 8일 1교시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토마스 룬 박사가 ‘예수의 설교와 우리의 설교’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3시 50분부터 90분간 갖는 2교시 강의는 ‘현대사회와 교회’를 주제로 한 특강이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현대사회와 교회”로,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교회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경 연구와 신학강의를 통해 21세기를 목전에 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 의료윤리와 같이 현대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을,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목회자와 가정생활’이나 ‘신세대의 고민’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2교시의 강의를 맡은 강사는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홍치모 박사(총신대), 노정선 박사(연세대), 정동섭 박사(침신대), 맹용길 박사(장신대), 김영한 박사(숭실대), 류상렬 박사(성결신대), 전호진 박사(아세아연합신대), 전대련 박사(서울 YMCA), 이원설 박사(전 한남대) 등이다.

1992년 3월에 시작하여 아홉 번째를 맞는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설교와 목회’,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경건과 교양’, ‘목회와 영성’,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등 주제를 다루었다. 목회자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새롭게

| 실시일    | 제 1 교시                                 | 제 2 교시                                            |
|--------|----------------------------------------|---------------------------------------------------|
| 3. 25. | 로마서강해<br>이종윤 목사(서울교회)                  | 한국교회 성장 둔화 - 그 원인과 대책<br>이만열 교수(숙명여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 4. 1.  |                                        | 크리스찬의 정치의식<br>홍치모 박사(총신대)                         |
| 4. 8.  | 예수의 설교와 우리의 설교<br>토마스 룬 박사(미국 프린스턴신학교) | 통일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br>노정선 박사(연세대)                 |
| 4. 15. |                                        | 목회자의 가정생활과 교회성장<br>정동섭 박사(침신대)                    |
| 4. 22. | 로마서강해<br>이종윤 목사(서울교회)                  | 현대교회와 의료윤리<br>맹용길 박사(장신대)                         |
| 4. 29. |                                        | 포스트모더니즘의 극복 대책<br>김영한 박사(숭실대)                     |
| 5. 6.  |                                        | 신세대의 고민과 처방<br>류상렬 박사(성결신대)                       |
| 5. 13. |                                        | 타종교와의 대화<br>전호진 박사(아신대)                           |
| 5. 20. |                                        | 대중문화와 교회<br>전대련 박사(서울 YMCA)                       |
| 5. 27. |                                        | 급변하는 사회와 21세기 비전<br>이원설 박사(전 한남대)                 |

게 조명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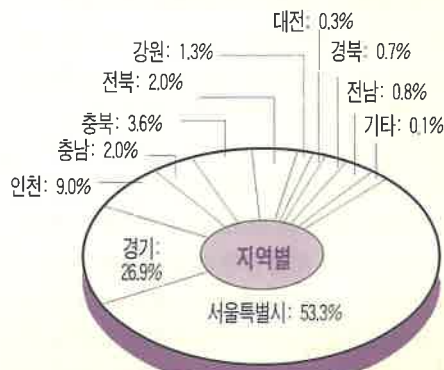
또한 목회자신학세미나에는 매학기 700 ~ 800명의 전국 목회자가 교과과를 초월하여 참석하여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학기별 주제

| 학기  | 주제                     |
|-----|------------------------|
| 1학기 | 설교와 목회                 |
| 2학기 |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갱신과 목회 |
| 3학기 |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
| 4학기 |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
| 5학기 |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
| 6학기 | 경건과 교양                 |
| 7학기 | 목회와 영성                 |
| 8학기 | 현대교회와 인성회복             |
| 9학기 | 현대사회와 교회               |

### 참석자 현황 ▲교과별 ▼지역별



창세기  
강해

## 요셉 까닭에

(창세기 39장 1절 - 6절)

이종운 목사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요셉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2절, 3절, 5절, 21절, 2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로 39장의 주제입니다.

### 1. 하나님에 의해 번영을 누리는 요셉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세상적 번영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마틴 루터는 라반의 예를 들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창30:27)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한 순간도 육체적 삶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세례와 죄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풍성히 베푸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3절). 요셉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책망했습니다.

### 2. 보디발로부터 사랑을 받은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사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안 보디발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3절 - 4절). 요셉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셨던 것처럼(눅2:52)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갔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기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17세 소년의 몸으로 팔려간 요셉이 30세 청년이 되기까지 2년의 감

옥 생활과 11년간의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급작스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나 요셉의 경우 모두 인간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 인간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모든 면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랑을 먼저 받아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한 것을 요셉이 허락할 경우 그는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자세로 일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3. 힘들고 신실한 봉사를 한 요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후에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같은 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주인을 즐겁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열심히는 일을 통해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언어, 생활풍습, 문화, 예술, 의학 등 모든 면이 낯설었을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은 일꾼으로서 그에게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그는 오랜 세월을 노력하고 자기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부지런했고, 착한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인, 왕, 애굽인, 그리고 맡겨진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고용인된 자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엡6:5-8).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기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아담의 7대손이었던 에녹은 300여 년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창5장). 이에 대해 신약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히11:5).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은 같은 뜻의 말로 하나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하나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처럼 요셉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25:23).

### ✧ 순례자 컬럼 ✧

#### “진실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피로를 느낀다는 것이다. 거짓과 불의를 감추고 자기 본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고 모순된 갈등이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감동시킨다.

이런 진실한 사람들에 의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왔고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런 진실한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진실한 사람들은 내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에 넘친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과 타협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취업과 대학입시를 앞둔 이들에게

## 날마다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기를

이은옥 (고등부 교사)

**고3**이라는 긴장된 3월을 시작하는 너희들에게 올해의 봄은 다 른 의미로 다가서리라고 생각된다.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가슴이 부풀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너희를 누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벽부터 밤까지 쳐져있을 너희의 어깨와 피곤한 발걸음 을 떠올리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그럴 때 우 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됨을 느끼며 감 사드린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한 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미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 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때로 지치고 때로 힘들어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너희를 괴롭힐 때 마다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도 너희들의 꿈을 펼쳐 보일 그 날을 기다 리며 너희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후배들과 너희들을 사랑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기도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너희와 같은 심장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이 봄의 찬란한 햇살 이 너희의 어두운 얼굴과 무거운 가슴을 뚫고 새 힘을 부어 주는 생명 의 계절로 임하기를 소원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경 한 구절을 떠올 려 본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 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을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도다”(이사야 40장 31절 말씀).



## 인내로 정금같이 나오기를

최치순 (고등부 교사)

**적**막함과 싸늘함 속에서도 겨우내 생명은 살 아 숨쉬고 있었다. 꽃을 시샘하듯 아직도 매운 바람이 우리의 코끝을 스쳐가지만 담벼락 언저리에 파릇 파릇 돌아나는 새싹 위로 한가득 내리는 봄 햇살은 우리를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는구나.

고3인 너희들에게 이 봄은 조금 남다른 기분을 자아내게 하리라고 여겨진다. 고교 시절의 마지막을 설렘과 즐거움보다는 진학과 취업으로 달라질 미지의 세계에 대비해야하는 분주함 속에서 맞이할테니 말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 사회의 청소년들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며 극도의 좌절감에 방탕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을 처음 맞이하는 첫 관문이자 전환점이 되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접하는 이 싸움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욥의 고백으로 권면하고 싶구나. 그렇다. 인간이 진력하는 까닭은 정금과 같이 되려는 데에 있다. 정금과 같이 되려면 자기 희생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3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자신을 연단하여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실 정금과 같은 믿음 으로 성숙해가길 기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지기 까지 묵묵히 전진하기를 당부한다.



###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②

## ‘김치’ (KIMCHI)라는 이름

김치(KIMCHI)라는 이름은 ‘국제선교와 교회갱신한국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영어 이름 첫 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다. 김치에서는 해 마다 다른 문화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신학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는 현지 목회자 재훈련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세미나 기간 동안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등 강의를 듣고, 한국교회의 성장원리를 몸소 체험하며 토의 와 나라별 모임을 통해 자국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에서 행하는 김치세미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세계 여러나라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성장과 갱신을 관찰하고, 체험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통해 다른 나라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 ③ 한국 교회 내에 선교비전을 확대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최선의 선교전략을 함께 논의하게 한다.
- ④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는다.

‘김치’ 라는 이름에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사랑받아 온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처럼 세계 교회에 잃어버린 영적 입맛을 되찾아 주고자 하는 설립의 목적이 담겨 있다.

### 사순절의 묵상

##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삼**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이다. 그분은 이런 시련을 통하여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있 도록 크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 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고난 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신다.

C. S. 루이스 -

## 고3을 위한 기도후원자 모임

오늘 11시 고등부실에서

오늘 11시 고등부실에서는 고 3을 위한 기도후원자 모임을 갖는다. 취업과 진학을 앞둔 학생 한 명이 다섯 명의 후원자와 결연하게 되는데 오늘은 학생과 후원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96년 첫 모임이다. 후원자들은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력을 쌓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일년간 기도로 후원하게 된다.

## 4월 학습·세례식

4월 학습·세례식이 3일(수) I, II부 예배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일(월) 오후 7시 4층예배실에서, 문답은 2일(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한다.

■ 신간

이종운 목사의

### 로마서 강해 II(5장 - 8장)



로마서 II / 320면 / 값 6000원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 강해 두번째 책이 필그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7학기과 8학기에 이종운 목사가 강해한 것을 모아 엮은 것이다. 지난 해 로마서 제 1장 ~ 4장의 강해를 엮어 만든 『로마서 I』에 이어 이번에 출판된 『로마서 II』에는 로마서 제 5장부터 8장까지의 강해가 수록되어 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리우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저자는 “단광에서 금을 캐는 광부처럼 깊이 파면 팔수록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복음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철저한 변증으로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 영향력이 인정된 로마서는 서신이라기 보다는 신학적 해설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필그림출판사에서는 창의를 주제를 다룬 『로마서 I』(1장 - 4장)과 성화의 문제를 다룬 『로마서 II』(5장 - 8장)의 출판에 이어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계속될 이종운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로마서 III』(9장 - 11장), 『로마서 IV』(12장 - 16장)등 총 네권의 책으로 나누어 출판할 예정이다.

새로 간행된 『로마서 II』는 교회 테이프 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사가 총판하여 전국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 ■ 목회자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18일(월)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회(연목회) 창립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 이종운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81회 총회 주제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28일(목) 세번째 모임을 갖는다.
- \* 29일(금) 오전에는우리교회당에서 한국로잔위원회가, 오후에는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 주최 심포지움이 여전도회관에서 각각 이종운 목사의 주관 하에 열린다. 이 목사는 ‘형벌과 교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 발표한다.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와질 수 있도록
2.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3들을 위하여
3.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진정한 회개와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길동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교회에는 장애자를 위한 사랑부가 있다.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연령이 정상아보다 낮거나 자폐증을 앓는 학생도 있다. 사랑부 교사들은 복음이 필요한 그들의 영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쏟아 붓고 있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무한히 잠재해 있을 그들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증의 재가(在家)장애자들에게 사랑부의 주일 집회는 유일한 외출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부실까지 오는 길은 멀고 험하다. 차에 오르고 내리는 일, 교회에 도착해서도 사랑부실까지 가는 일, 화장실 출입... 이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결음도 움직일 수 없는 학생이 많다.

현재 6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사랑부에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은 4 - 5명 뿐이어서 주일이면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쉽게 지쳐 버린다. 교회에 도착한 버스에서 사랑부실까지만 데려다 주어도, 집회를 마친 후 다시 버스에 태워만 주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랑부 집회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며 사랑부 학생들이 탄 버스는 12시 30분분에 교회에 도착한다. 그리고 집회가 마치면 3시에 다

###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② 4월 1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크리스찬의 정치의식(홍치모 박사)
- ③ 4월 8일 · 제 1교시 / 예수의 설교와 우리의 설교 (토마스 롱 박사)  
· 제 2교시 / 통일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 (노정선 박사)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국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국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 교회위치

